



# 李忠熙 · 權純子 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객원교수> <경희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 美 유학중 만나 결혼한 학문의 동반자

물리학과 화학, 전공분야는 다르지만 미국 브라운대학 유학중 현지서 만나 결혼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李忠熙**연구위원과 경희대 화학과 **權純子**교수 부부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한국표준연구소장, 물리학회장을 역임한 이 연구위원은 온도분야의 권위로 국가표준을 확립하는데 공헌을 했으며 생화학분야가 전공인 권교수는 생체물질의 구조나 신진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국내 화학계의 맏언니이다. 이들 부부는 학문의 동반자이자 친구같은 사이라고 한다.

이충희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객원교수·63세)와 권순자박사(경희대 화학과 교수·61세) 부부는 서로를 학문의 동반자이며 친구같은 사이라고 평하고 있다.

물리학이 전공인 이충희박사와 화학이 전공인 권순자박사는 전공이 동

일하지는 않지만 상호보완적인 학문의 성격상 서로 도움이 돼 주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만큼 두사람은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다. 이러한 신뢰는 두사람의 학문과 사랑에 대한 열성과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 미국 브라운대학의 선후배

한국표준연구소장을 역임한 이충희박사는 온도분야의 국가표준을 확립하고 백금저항온도계와 광고온계의 국가온도표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측정표준 연구와 물리학 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한 학자이다. 국내 화학계의 맏언니로 불리는 권순자교수는 교수라는 직분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이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69년 미국 Brown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71년에 경

현대 물리학과에 부임하여 유리반도체 연구와 미국에서 연구하던 NMR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희대 유리반도체연구소는 당시 국내 유일의 유리반도체연구소였으며, 앞날이 크게 기대되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연구여건이 매우 취약해 직장을 옮겨서 좀더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펼쳐보기로 한 이박사는 77년에 대덕연구단지에 설립된 한국표준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온도표준연구소장직을 맡아 연구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88년부터 91년까지 한국표준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박사는 초창기 표준연구소의 미비한 연구체계를 확고히 하여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박사는 이 기간중 온도분야의 국가표준을 확립하고 산업체에 관련기술을 보급하는 일에 몰두하여 백금저항온도계와 광온계의 국가온도표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이외에도 흑체복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와 CARS를 이용한 연소온도측정기술을 정립하였고, 극한기술개발 등 대형 국책과제를 주도하는 등 연구소의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李박사는 물리학회장 역임

이박사는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부원장과 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온도표준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고려대 객원교수로 후학 교육에도 열의를 쏟고 있다. 학회 발전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박사는 71년 물리학회 평의원으로 시작해 편집간사, 재무간사, 총무간



▲ 좌로부터 차남 재석씨, 이충희박사, 권순자박사, 장남 재현씨, 며느리 이승혜씨, 손자 원호군.

사, 응용물리학 분과위원장, 이사 그리고 부회장 겸 간사장을 두루 거쳐 93년에는 물리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권순자교수는 71년 브라운대에서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1972년 경희대와 인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 단 한번의 외도와 쉽 없이 경희대 화학과를 지키고 있다. 권교수는 서울대 화학과에서 이학사를, 대학원에서 이학석사를 거쳐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여기서 이충희박사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 생화학분야가 전공인 권교수는 살아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생체물질의 구조나 신진대사를 연구하여 유전학적으로 응용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유전자 조합을 통해 감자와 토마토를 합성한 포테이토를 개발하는 것도 바로 이 분야중의 하나로 권교수는 현재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생화학과 관련된 분야를 교수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 권교수는 최근 효소의 반응속도론, 효소반응기구 등을 주로 연구중인데 앞으로 주어질 안식년을 이용

해 관련 분야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박사는 현재까지의 생애에서 가장 기뻐던 일은 권교수와 결혼과 한국표준연구소장 취임, 한국물리학회장으로 당선된 일과 3.1 문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라고 말한다.

### 교회선 주일학교 교사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두사람은 연구와 학교생활 외에 교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두고 있는 두사람은 가능하다면 교회를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수학이나 화학, 영어 등을 가르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슬하에 두아들을 두고 있는데 장남인 재현씨는 현재 미국 M.S.U에서 천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 과정중에 있으며, 둘째 아들인 재석씨는 연세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①7

송해영(본지 객원기자)